

C-3. 치주질환으로 인한 골연하 결손부에서 치주판막술에 의한 치주 조직의 재생 Periodontal regeneration in intrabony defects following peri- odontal flap surgery

김현숙, 권용수, 차현정, 박진우, 이재목,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 수술의 목적은 접근성의 획득, 치주낭의 감소나 제거, 치주조직의 재생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치주판막술의 적응증으로는 오염된 치근면에 대해 기구의 접근성 확보, 두꺼운 섬유성 치은으로써 깊은 치주낭의 염증을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초기치료 중 계속해서 치주농양이 야기되는 경우, 초기 치료 중 부분적인 분할발치에 동반되는 처치, 교정치료전 깊은 골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 확정적인 치주수술의 전처치, 골연하 결손부에 골재생이나 수복을 기대하는 경우, 중증 치주염의 초기치료, 직시하에서 골과 근분지부내 결손을 정확히 평가하고 확정진단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골연하 결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부착을 유도하는 GTR이 가장 예지성이 뛰어난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많은 요인을 고려하면, 치주 질환에 의한 모든 골연하 결손에 GTR을 적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각화치은이 부족하고, 치은의 두께가 얇거나 치은 퇴축이 심한 경우에는 적응증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 골연하 결손부에서 골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debridement을 동반한 치간부위를 노출시키는 치주판막술을 적용할 수 있다.

Prichard는 골연하 결손에서 보다 양호한 결과를 위해서 판막처치의 필요조건으로 상피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77년 치근면을 따라 상피의 근단방향 이주가 조기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내 결손의 입구를 판막으로 덮지 않고 치간부 치조골정을 노출시킨 채 판막을 봉합한 interdental denud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골연하 결손에서 골재생을 보고하였다. Froum 등도 open flap procedure 후의 골재생을 보고하였고, 이들은 술 후 유지기간의 내원 수의 증가는 부착획득과 골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치태의 양의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재생 술식이 시도될 수 없는 골연하 결손부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구강위생이 유지된다면 치간 부위를 노출시키는 flap procedure에 의해서 치주 조직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교실에서도 여러 이유로 GTR과 같은 재생술식이 시도되기 어려운 골연하 결손부위에서 치간 부위를 노출시키는 flap procedure를 포함한 다양한 치주판막술을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의 가능성과 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